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제3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홍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X3)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끝없는 은총을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절기에도 삶의 큰 변화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일상은 누추하고 변화의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과 호흡이 더 느려지고 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가야 할 곳을 분명히 바라보며 낮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세먼지 자욱한 하늘처럼 앞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위에 드리워진 어둡고 무거운 기운들을 주님께서 말씀히 치워주십시오.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 속히 가라앉게 해주십시오. 주변 국가들과의 얽히고설킨 문제들도 하루 빨리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마태5:10
▲ 교 독 문	126. 사순절(3)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2부대표기도	윤성종 권사
2부응 답 송	찬양대
2부찬 양	393. 오 신실하신 주
▲ 성경봉독	요 11:45-54
	I. 인도자
	II. 오자영 집사
	봉독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 양	하나님의 사랑
	찬양대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저 언덕 너머 울고 있는 삶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내 가는 길 십자가 길 십자가 침묵 사랑의 외침 내 할 말 십자가
 내 할 말 내 할 말 십자가

말씀	악마의 썬법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454. 주와 같이 되기를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의 생명이 하나의 세계입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이를 도구화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썬법입니다.			
다함께:	아멘. 내 욕심과 내 생각만을 귀중하게 여길 뿐 한 생명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이기적인 계산을 그만 두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돌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권위 나눔, 소유 나눔

예수 시절의 무리들처럼 가난한 조선 백성들의 입장에서 팔복의 첫 구절을 읽으며, 김교신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말로 가난한 이가 천국을 소유할 복을 현재 누릴 수 있다면, 김교신의 표현마따나 “이것이야말로 운행하던 태양이 서게 되고 고정하였던 지구가 공전하게된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인류사회를 전도시키는 혁신”이다. 김교신은 누가와 마태를 비교하며 ‘천국을 소유할 가난’을 목상했다. 먼저 누가복음 저자가 강조한 ‘물질적 가난’이다.

… 천국에 들어감에는 부자보다 빈자가 유리함이 많다. 가난한 것이 오히려 천국을 향하는 자극을 주는 것이니, 빈(貧)은 소원할 만한 처지요, 가난한 자는 복스러운 것임을 알 것이다.

성서를 읽으며 나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권위 나눔’과 ‘소유 나눔’이라고 요약해왔다. 그것이 권력이든 소유든 ‘내 것’을 확장하고 축적하는 삶은 ‘반(反)하나님적’이다. 그런 욕망은 이 땅에 수직적 구조를 공고히 하게 되고 소수의 권력자와 부자들만이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차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로부터 이집트, 바벨론, 군주제 시절의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시절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아니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의 시절인 오늘날에도 한결같다.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적 가난으로 몰아넣고서 꼭대기에 오른 왕과 부자는 결코 쉽게 자발적으로 권위를 나누고 소유를 나누지 않는다. 하여 그들은 천국으로부터 멀다.

그러나 영화 <카드>에서 보지 않았나? 내 아이 수학여행 갈 돈을 마련하느라 악착같이 일을 한 ‘가난한’ 엄마는, 아이가 급작스레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가 동동거리는 동료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피 같은 돈’을 쥐어주고 돌아온다. 아니까, 아픈 아이들 둔 ‘가난한 엄마’의 심정을 아는데 어찌 내 소유를 나누지 않을 수 있겠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아버지를 일찍 여윈 집안의 장남으로, 가

난한 이들 가운데서 나고 자라며 그들이 기꺼이 권위와 소유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을 예수라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란 별것 없다. 이웃과 평등하게 형제자매로 살아가면서(권위 나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소유 나눔) 현재를 살아내라’는 복음을 가난한 자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것을 체험하면서, 예수는 단언할 수 있었으리라. 복스럽도다! 가난한 이여! 천국이 지금 그의 것이다! 김교신도 이 지점을 보았지 싶다. 이웃을 짓밟아야만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반(反)하나님적 시스템에서 가난하다면 차라리 그게 복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형제자매와 권위를 나누고 소유를 나누며 천국을 살아낼 수 있으니 말이다.

한편 김교신은 마태복음 저자가 강조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에서도 천국을 ‘지금’ 가진 사람의 품성을 목상했다.

성 마태는 주의면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였다. ... 학식으로나 제반 덕행으로나 내심에 자궁할 아무것도 인식한 것이 없는 자가 제일 심한 빈자(貧者)이다. 이렇게 보아서 최대 빈자의 하나는 사도 바울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체험을 했노라고, 유명 학자나 유명 목회자 밑에서 성서공부를 했노라고, 교회와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에 빠진 이들은 보통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마련이다. 이웃 위에 우쭐대는 심성과 태도를 가지게 된다. 마태복음 기자와 함께 김교신은 이 역시 천국으로부터 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도대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 안에서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겸손할 것이므로 그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이다. 전적으로 동감이다. 하나님 나라는 ‘권위를 나누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내가 이웃 ‘위에서’ 주장할 나만의 권위라는 것이 전혀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받은 이라면 누구나 평등한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나라이다. 그러니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여, 또한 심령이 가난한 이여! 모두 복되다. 지금 천국이, 그 통치 질서가 그의 것임이기에.

- 백소영, 「버리지 마라 생명이다」(꽃자리) 중에서

■ 마음으로 읽는 글 ■

눈물의 중력

- 신철규

십자가는 높은 곳에 있고
 밤은 달을 거대한 손가락으로 파먹는다/
 한 사람이 옆드려서 울고 있다/
 눈물이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으려고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받고 있다/
 문득 뒤돌아보는 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갈 때
 바닥 모를 슬픔이 너무 눈부셔서 온몸이 허물어질 때/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옆으러 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눈을 감으면 물에 불은 나무토막 하나가 눈 속을 떠다닌다/
 신이 그의 등에 걸터앉아 있기라도 하듯
 그의 허리는 펴지지 않는다/
 못 박힐 손과 발을 몸 안으로 말아 넣고
 그는 돌처럼 단단한 눈물방울이 되어간다/
 밤은 달이 빨이 될 때까지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는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 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광권희 장원호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김 린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근종 정옥영 김명순 이교영 김명하 오형일 김병대 김애순 김용진 박효선
 김종철 고영애 김창숙 김희진 오박홍재 박기영 박창운 김허정 진윤선 송인선
 양경해 우경환 윤수진 이윤순 은종인 이광용 이국노 김민화 이근식 이현숙 영신
 이봉옥 이순용 김신실 이순이 이재은 이주영 오재영 이한림 김명희 김석희 최희
 이고임 전수연 정완수 김재광 조관행 이홍선 조지연 주은은 김최허 용근희 최규열
 고인성 최재욱 이수정 한상균 한상수 한상수 홍해린 한상익 정영선 최허허 신현호

감사헌금

관권희 권미숙 김성우 박유경 김승현 김수진 김예준 김용길 최영혜 박민아
 박재영 이현정 박진미 박진주 박창운 김허정은 박홍재 김방경 김선숙 최숙경 안성호
 김희숙 오송경 이고임 정학성 김현숙 이상도 이은빈 이은서 최형서 이은진 은종인 이지용
 장원호 정영례 정학성 김현숙 진선영 최승주 최희하 하현일 김광우 김관우 한완식
 임정자 무명27

생일감사헌금

윤수진

녹색꿈헌금

양경해 이수자 장영숙 정효진 무명7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교회소식 ■

1. **선교회** : 오늘 오후 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2. **세례입교신청** : 이번 부활절에 세례·입교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은 4월 1일, 입교교육 4월 8일입니다.
3. **새 책** : 김기석 목사의 새 책, 「공공 앓는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 1층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4. **새교우만남** : 담임목사와 1,2월 새교우와의 만남이 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5. **모집** : 문화부에서 부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세요.
6. **신청** : 5월 첫 주일(7일)은 청파교회 설립기념주일입니다. 오후에 축하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악기 연주, 노래, 낭송 등)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7. **별세** : 지난 13일(월) 홍지환 교우가 별세하여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8. **신앙실천** :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있는 실천사항들을 지키도록 합니다.
* 떡 커피 대접 : 조관행 홍선희

고난주간 기도회
4월 10일(월) - 14일(금) 저녁 7:30 교육관

다음 주 설교 본문 담후 3:1-9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박범희	문홍일

1부 영접위원	최미자	헌금위원	진정숙
3월 2부 영접위원	박홍재 박석희	이민범 신정훈	서정순 조항미
2부 헌금위원		김정민 권미숙	

오늘 식당 봉사	최경미 강금연 박윤숙 김선영 이오복 이현정 조장형 박재영		
다음주식당봉사	성가대		
오늘설거지봉사	3여선교회(56-60)	다음주설거지봉사	4여선교회(51-55)
커피 판매 봉사	6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허호범